

2018년 미국 Shasta College Summer Program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캘리포니아 Redding
파견대학	Shasta College	기간	2018. 7. 1. ~ 7. 22.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대학위치는 캘리포니아 레딩에 위치해 있으며, 언덕이 없이 평지로 펼쳐져 있는 순천향대학교와 규모가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용한 학교 내 시설은 강의실, 카페테리아, 커먼스 룸입니다. 카페테리아는 말 그대로 식사를 하는 곳이고, 커먼스 룸은 우리가 직접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모든 장비가 갖춰진 곳이며 오락거리(당구, 탁구,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과 비슷합니다. 학교의 분위기는 한 시골마을의 한적함을 느낄 수 있으며 학교 내 사람들은 모두 친절합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수업은 웹디자인수업과 ESL수업이 있었습니다. 우선 웹디자인 수업은 아침시간에 3시간동안 이루어졌는데, 초반에는 3시간 내내 수업이 진행되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30분 수업에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동안은 자신이 선택한 필드트립을 주제로 웹디자인을 하는 시간입니다. 질문을 하면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일대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과제는 앞서 말했던 자신의 필드트립 웹디자인만 하면 따로 없었고, 수업준비도 딱히 없습니다. 두 번째로 ESL수업은 솔직히 말하면 교수님께서 너무 열정적이다 못해 혼자만 말씀하시고 저희 말은 그냥 들으시고 대꾸도 안하십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간식거리는 엄청 잘 챙겨주셔서 먹다보면 수업이 끝날 때도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스피킹을 주로 다루는데 라이팅작업 없이 그냥 말을 하는 것이라 처음에는 많이 힘들겠지만, 하다보면 뭐라도 말하게 되더라고요. 프린트의 양이 너무 많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고 과제를 내주셔도 교수님께서 내줬었는지 기억도 못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너무 뜬금없는 수업 주제에 외국인 친구들도 이 수업을 들으면서 당혹스러

	워 했습니다.
필드트립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 필드트립 정말 많이 다닙니다. 4th of JULY를 맞아 불꽃놀이를 시작으로 샌프란시스코, 워터파크, 카약체험, Turtle Bay, Shasta Dam, Burney Fall, Health Science 등을 다녀왔습니다. 준비물이 필요한 것은 각각의 장소마다 다르지만 워터파크를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영복이 필요하고 카약체험날 물에 모두 젖지만 딱히 갈아입을 곳이 없는 것을 생각해서 여러분의 옷 보다는 레시가드와 같은 옷을 입고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날씨가 매우 덥기 때문에 선크림을 꼭 챙겨야합니다. 추가비용은 모두 개인마다 다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일 많은 지출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쇼핑을 할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는 필드트립이기 때문입니다! (쇼핑시간을 1시간 30분? 정도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미리 살 것들을 정해 두는 것도 좋을 것같아용)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기온 40도가 넘나드는 날씨지만 한국과 달리 습하지 않고 매우 건조해서 팩을 해도 바로 마르는 신기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바디로션, 마스크팩 등 온갖 수분에 도움되는 것들은 다 챙겨오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강의실과 기숙사 내는 매우 춥기 때문에 얇은 남방이나 가디건을 챙겨가세요!
안전	현지 안전 상황 학교 내에 세큐리티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불안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또한 커먼스룸, 기숙사 내는 스마트카드를 찍어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외국인 친구들과 항상 같이 다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슨일이 생겨도 그 친구들이 해결해줄 것입니다.
숙소	기숙사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기숙사 시설은 우선 만족입니다. 이불과 베개, 수건이 배치되어 있었고 복도 중간에 다목적실과 같은 곳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규칙은 따로 없었고, 통금도 없습니다. 외국인 친구와 함께 룸메이트가 되기 때문에 혹시 선물을 준비하고 싶다면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래시설도 모두 갖춰있는데 빨래 한 번당 45센트, 건조 한 번당 30센트입니다.
식사	학교식당 (√) 외부식당 (√)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처음 일주일엔 학교식당을 이용했고, 두 번째 주는 외부식당을 주로 이용했으며, 마지막 주에는 커먼스 룸에서 직접 해먹었습니다. 학교식당의 음식은 사람마다 정말로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적당한 것이 없이 매우 짜거나 매우 담니다. 메뉴는 일주일을 기준으로 번가라가면서 나옵니다. 피자, 햄버거, 토스트가 주로 나오며 과일, 샐러드, 우유, 시리얼은 매일 똑같습니다. 외부음식은 어디를 가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외부음식이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커먼스 룸에서 음식을 직접 해먹을 때는 아시안푸드코너에서 양념과 식재료를 사왔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었으며, 불닭볶음면과 김, 핫반 등을 팝니다.
교통	시내교통 관련 교통편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는 한번도 우버택시, 버스 등을 이용해 본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곳을 갈 때는 학교버스를 이용했으며, 마트를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놀러갈 때는 모두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외국인 친구들의 차를 이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차를 운전할 줄 알아요!) 그리고 멀리 갈 때에는 그 친구들에게 주유값이나 다른 곳에서 지출되는 값을 저희가 모아서 대주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지출 금액과 현지에서 추가 지출한 총 지출내역을 써 주세요.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보험료	35,000	출국 전 사전 납부
달러	700,000	국내에서 미리 환전
카드	300,000	쇼핑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레딩이 매우 덥기 때문에 수분관련한 것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음식이 느끼하고 짜고 하기 때문에 한식이 많이 그리울 것입니다.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꼭 핫반, 고추장 같은 것을 너무 많이 챙기시는 마시고 조금씩 챙겨가 주세요~~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에게 정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꼭 보답해주고 싶은 친구가 생길 수도 있으니 비싼 것이 아니라도 선물을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비가 매우 비싸 아파도 병원을 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꼭 상비약을 챙겨주세요!

강의실과 기숙사 내는 매우 춥기 때문에 얇은 남방이나 가디건을 챙겨가세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처음에는 영어 스피킹도 잘 못하고 글로벌빌리지에서 살지도 않아서 아는 외국인 친구도 없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너무 적응을 잘해 갔다온 지금도 많이 그립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전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음식이 입에 안맞아도 점점 먹고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필드트립과 다른 친구들과 함께 따로 다닌 것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저에게 많은 경험이 되었고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운이 많이 남을 줄 알았더라면 쉬지않고 더 여기저기 다녀볼 걸.. 이라며 후회중입니다. 또한 3주는 적응하는데 정말 너무나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거기에 있을 때 고마움을 많이 표현하고 왔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4th of July 불꽃축제에 가서 찍은 사진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에 가서 찍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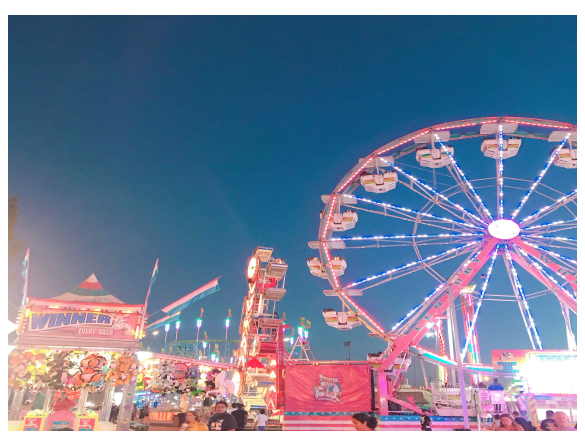
카약타기



모두가 나오진 않았지만 몇 명끼리
2018미국마크가 달린 티셔츠를 단체로
맞춰서 입고 필드트립 간 날!



Burney Falls 풍경



가고 싶은 사람들끼리 떠난 캘리포니아의

	수도 새크라멘토! 그 중 야경이 정말 예뻐던 statefair!!아직도 이 때의 추억은 잊을 수가 없다.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날	우리가 떠나는 날 마지막까지 기다려준 Jon과 Arik